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19. 11. 20.(수) 총 2매(본문 2)	
<b>담당 부서</b>	국제항공과	<b>담 당 자</b>	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황성필, 주무관 이혜신 - ☎ (044) 201-4207, 4211, 4209
<b>보 도 일 시</b>		2019년 11월 2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0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토부 · 항공업계, 항공수요 변화에 발맞춘 노선다변화 꾀걸음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-일본 간의 항공수요 감소 등의 급격한 수요변화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노선망에서의 일본노선 편중을 완화하고, 항공네트워크를 다변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.
- 그간 저비용항공사(LCC) 노선확대,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여행 친화적 환경정착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공여객실적은 크게 상승\*해왔다.
  - \* 항공여객(만 명) : 8,143('14년) → 8,941('15년) → 10,391('16년) → 10,936('17년) → 11,753('18년)
- 특히, 한-일 간은 항공자유화\*(13)가 설정되어 있어 양국 항공사의 취항이 자유롭고, 근거리·무비자 관광지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, '19년 상반기 전체 국제여객실적의 25%가 일본에 편중되어 있었으며, 특히 우리나라 LCC의 경우 46% 가량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다.
  - \* 항공당국 간 합의로, 양국 간의 민간항공기 운항횟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
    - 근거리 지역 중, 중국(산둥·하이난성 한정), 대만, 홍콩, 마카오, 동남아(싱가포르·인니·브루나이外 7개국), 러시아(블라디보스톡·하바롭스크 한정), 미주(괌·사이판 등 포함)
- 그러나, 하반기 이후 일본에 집중되던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 또는 중국·동남아 등의 대체지역으로 분산되기 시작함에 따라,
  - 국토부는 급변하는 항공시장 상황과 항공노선 공급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, 공항의 운항시각(슬롯, 항공기 이·착륙 시각)을 최대한 지원하고, 정기·부정기편의 허가 및 계획변경을 적극 진행하는 등 항공사의 원활한 노선 다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.



- 이에, 우리나라 8개 여객항공사는 항공수요에 맞춰 전체 국제선 공급좌석 대비 일본노선 비중을 6월 당시 32.2%에서 현재 20.6%로 단계적으로 낮추고, 중국·동남아·대양주 등으로 노선을 분산했다.
- 그 결과, 실제 7~10월간의 항공여객실적도 일본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1.2%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, 대체지역의 항공실적 상승이 이를 상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국제선 여객이 3.7% 증가하는 등 노선 다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

< 최근 3년간 7~10월 항공여객실적 추이(명) >

연도 (7~10월)	일본	대체 근거리 국제선				총계	전체 국제선 총계
		중국	기타 중화권	동남아	기타 근거리*		
2017	6,587,744	4,738,717	2,894,697	6,341,104	1,308,885	15,283,403	26,394,566
2018	6,891,863	5,906,942	3,013,803	7,250,245	1,516,488	17,687,478	29,194,269
2019	5,432,305	6,633,439	3,125,976	8,604,839	1,646,435	20,010,689	30,258,624
(전년비)	-21.2%	12.3%	3.7%	18.7%	8.6%	13.1%	3.7%

\* 한-일 노선과 동일 기종으로 운항 가능한 지역(몽골·극동러시아 등 동북아, 대양주 등)

-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의 영업반경을 확대하고, 항공교통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, 싱가포르·인도네시아·브루나이 등 동남아 국가와의 항공 공급력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,
- 또한, 내년부터는 항공 네트워크가 다소 부족한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과의 항공협상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항공노선이 보다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적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42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